# 생명 탄생에서 이별까지 세종실록의 생생한 숨결

#### 세종이 선택한 생명의 이야기 '성주생명문화축제' 17~20일



태어나서,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, 어떻게 죽느냐는 온 인류의 공통 관심사다.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생(生) 활(活) 사(死)의 의미를 세종대왕자태실, 한개마을, 성산고분 군을 통해 재해석하고, 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성주생명문화축제에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.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성주군 성주 읍 성밖숲과 월항면 세종대왕자태실 일원에서 개최되는 '2018 성주생명문화축제'를 들여다 봤다.

## 역사적 사실 기반 세종대왕자태실·한개마을 등 통해 생명문화 재해석 참외 진상의식·베이비 올림픽·과거시험 골든벨·태교음악회 등 다채

◇모든 프로그램 생명문화 가치 전달 위한 주제 의식 뚜렷

올해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주제 '세종이 선택한 생명의 이야기'는 세종실록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 로 한다. 이에 따라 조선왕조 가장 위대한 왕 '세종' 이 선택한 길지, 성주의 생명문화의 가치를 누구니 알기 쉽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뚜렷하다. 40만 명 이상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축제는 전시와 공연, 체험, 참여행사로 구성된다.

성밖숲 일원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은 주제관 (생명문화관), 내 인생의 숲(성밖숲 프로그램), 베이 비 올림픽 & 베이비 페어, 신과 함께-귀인의 길(미 션 수행 게임), 생명문화 체험학교(문화예술단체 체 험, 먹거리 체험 등), 예술무대(예술동아리 공연, 어 린이 마술&버블 공연, 태권도시범 등) 등 다채롭 다. 과거시험 골든벨 & 삼일유가 행렬체험, 서예 퍼 포먼스, 휘호대회 작품전시, 키자니아(어린이 직업 체험), 참외공원, 참외반짝경매, 참외이벤트, 수상 놀이터, 푸드트럭 등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.

주무대를 중심으로 첫날인 17일은 '생명의 땅 만 남 이야기'를 주제로 세종대왕자태실에서의 생명 선포식, 성밖숲 주무대에서 개막식이 펼쳐진다. 18 일은 '생명의 땅 열매 이야기'를 주제로 참외 진상 의식, 참외가요제 등 성주의 세계적 특산물 참외를 테마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. 19일은 '생명 의 땅 사랑 이야기'를 주제로 태봉안 퍼레이드, 태 교음악회, 해외민속공연이, 마지막 날인 20일은 '생 명의 땅 별고을 이야기'를 주제로 시가지 퍼레이드, 틴틴 페스티벌, 폐막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진다.

◇과거·현재·미래 생명문화·특별한 태교음악회 각 주제관이 설치된 생명문화관에서는 온 가족

이 생활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. 과거의 생명문 화, 현재의 생명문화, 미래의 생명문화 등 3개 영역 으로 구분되며 각각 인간의 생명문화와 관련된 다 양하고 유익한 내용이 가득하다.

과거존은 성주를 선택한 세종, 백성을 사랑한 세 종, 조선시대의 육아일기 등 3부로 구성된다. 현재 존은 우리엄마 이야기와 나의 생명 이야기로 꾸며 지며, 미래존은 '세종을 만나다'와 '왕자태실을 지 켜라'를 테마로 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참여 및 체험 형 프로그램이 빼곡하다.

특히 주목할 것은 태교음악회다. 세종대왕자태 실과 이를 주제로 한 생명문화축제와 연계한 '우리 소리 태교 음악회'가 마련됐다.

이번 태교음악회는 생명문화의 본고장 성주의 무 한한 가치를 음악으로 표현, 생명문화와 함께 우리 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. 할머니의 할머니부 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가락 선율과 동서양의 태교 음악을 오케스트라와 즉흥 연주로 표현해 우리 민 족의 생명존중 문화와 전통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.

성주생명문화축제 관계자는 "우리소리 태교 음 악회는 성주군만이 보유한 소중한 정신적 인문학적 생명문화 자산을 예술로 승화시킨 격조 높은 음악 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설명했다.

이밖에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중심이 된 생명을 주제로 한 마당극과 각종 연주회는 축제공간을 생 명문화의 기운으로 가득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. 공 연과 연주회가 내뿜는 문화예술의 향연은 생명을 주제로 한 마당극과 다양한 우리소리 공연과 연계



세종대왕으로 분장한 김항곤 성주군수가 관람객들 에게 참외를 나눠주고 있다. 지난해 축제 장면.

돼 생명의 소중함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재미도 선사한다.

◇확 달라진 형식 관람객 편의·관심 부응 초점 축제 첫날 세종대왕자태실 일원에서 열리는 생 명선포식은 태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성주군민의 소망이 집약돼 충분한 볼거리가 될 전 망이다.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태실 문화를 보유한 성주군이 위상을 높일 기회로 판단해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.

또 주제관은 폐쇄형으로 전환했다. '세종이 선택 한 생명의 땅 이야기' 주제를 집중도 높게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배려다. 동시에 태 항아리 특 별 전시회를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. 체험존 구성과 운영도 학교 형식의 체험 공간으로 변화를 주었고, 어린이 직업체험 코너에 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면서, 미래 자신이 가질 직 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.

'신과 함께-귀인의 길' 미션수행 게임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과 젊은 부모들의 관 심과 발길을 잡기 위한 '베이비 올림픽 & 베이비 페 어'는 특이하고 참신하다. 매년 펼치는 해외민속공 연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진행방식을 바꿨다.

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레이드와 행렬 재현을 통 해 축제장을 전통시장과 시내까지 확장해 관람객 들이 성주의 역사 문화 체험과 특산물 구입이 자연 스러운 동선이 되도록 했다.

성주생명문화축제 관계자는 "해마다 격을 높이 고 있는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지역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형식의 전시와 공 연, 참여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전국적으 로 높아진 인문학적 관심에 부응할 것"이라며 "주 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생명문화 축제는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문화 향연의 기쁨을 안겨줄 것"이라고 말했다.

> /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= 매일신문 이영욱 기자 hello@msnet.co.kr 〈사진=경북 성주군 제공〉



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 동 취재·보도합니다.



지난 2일 서울 광화문 대로에서 펼쳐진 세종대왕자 태 봉안행렬. 왕자들의 태는 경복궁 교태전에서 세태 의식을 거쳐 봉출되고, 강녕전에서 태봉지를 낙점하는 교지가 선포되면 안태사에게 인도돼 봉안행렬이 경복궁을 출발한다. 이 행렬이 성주에 도착하는 17일 2018 성주생명문화축제는 막을 올린다.



세종대왕자태실

### 적서 왕자 18기 등 19기 조성 조선시대 최초 왕자 태실

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태봉(胎峰) 정상에 있 는 태실. 사적 제444호. 1438년(세종 20)에서 1442 년 사이에 조성된 태실로, 세종의 적서(嫡庶) 18왕 자와 세손 단종의 태실 1기를 합쳐 모두 19기로 조 성됐다.

전체면적은 5천950㎡로, 19기 중 14기는 조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, 세조의 왕위 찬 탈에 반대한 다섯 왕자의 태실은 방형의 연엽대석 (蓮葉臺石)을 제외한 석물이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다.

왕과 태자에 대한 태실만을 조성하던 고려시대 의 태 봉안 양식이 변화되어 왕과 왕비, 자녀의 태 실을 조성하기 시작한 조선시대 최초의 왕자 태실 로서 큰 의미가 있다. 우리나라에서 왕자 태실이 완전하게 군집(群集)을 이룬 유일한 곳으로, 고려 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와 함께 왕실의 태실 조 성방식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.



한개마을

#### 진주목사 이우 입향…성산이씨 집성촌 1700~800년대 전통 한옥 자태 뽐내

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1리에 위치한 조선 초 기에 형성된 문화재 한옥마을. 중요민속문화재 제 255호. 조선 세종 때 진주목사를 역임한 이우(李 友)가 1450년쯤에 입향한 이래 560여 년을 내려오 면서 성산이씨(星山李氏)가 모여 살고 있는 전통 씨족마을이다. 다수의 전통한옥이 보전되어 있으 며, 경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9개 동에 이

이 마을이 번창했을 때는 100호가 넘었다고 하 나, 현재는 69호의 집이 있다. 하회댁은 1,750년쯤 에 지어졌으며, 교리댁'북비고택'한주종택은 1, 700년대 후반에, 다른 큰 한옥들은 대개 1800년대 에 건축되었다.

중요한 특징은 여성 공간을 마을공간에서 가장 멀리, 가장 깊숙이 배치한 것이다. 주거지 끝에 위 치한 한주종택과 월곡댁에서만 샛길이 생략되었 을 뿐, 각각의 집들에서는 안길, 샛길, 사랑채, 안 채의 배열순서가 지켜졌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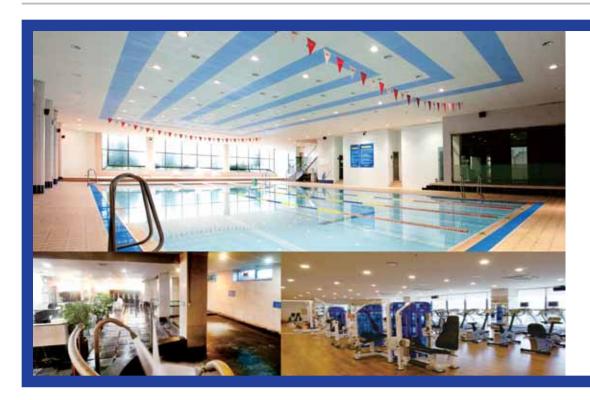
성산고분군

### 삼국시대 성산가야 고분군 5기 은제관장식 등 1천여 토기 출토

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삼국시대 성 산가야의 고분군. 사적 제86호. 성산리의 남쪽에 있는 구릉의 척량부(脊梁部)에 연주상(連珠狀)으 로 축조된 원형봉토분군(圓形封土墳群)이다.

5기의 고분에서 1천여 점에 가까운 토기가 출토 되어 다른 고분에 비해 토기부장이 우세한 편이 다. 그러나 고분의 규모에 비해 관모류를 비롯한 장신구류, 갑옷과 투구류, 장식큰칼류, 및 금속용 기나 기타 금공품류 출토는 빈약한 편이다. 또한 무덤의 주인공이 안치된 으뜸덧널에 유물이 빈약 한 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.

제1호분은 토기류와 쇠도끼·은제관장식과 금 제귀걸이, 은제허리띠·고리자루칼(環頭大刀)의 순으로 놓여 있었고, 서쪽 벽의 주위에는 토기류 가 부장되어 있었다. 그 밖에 돌방의 사방에서 창・ 준·화살촉의 부속구로 보이는 은제품·곱은옥형 금구와 동환(銅環)이 출토되었다. 5세기 후반경 성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.



## 회/원/모/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쉽

#### 회원특전

무료이용 • 사우나 및 휴게시설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, 수영장

**특전사항** •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

- 객실 이용 시 주중 50%,주말 (금, 토, 공휴일 전날) 30% D/C
-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(60Box:₩130,000 -> ₩80,000)
-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% DC (단,룸 이용 시 10% DC 적용 안됨)
-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
- •에어로빅,수영 단체 레슨 무료 •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% DC

상담문의 062-228-4711,2/221-4101,3

#### 보증금 및 연회비

구 분	보증금	연회비 (VAT포함)	비 고 (2018년 기준)
개 인	850 만원	₩ 1,920,000	1구좌 기명1인
가 족	1275 만원	₩ 3,140,000	1구좌 직계 1인 포함 / 1인 추가 시 425만원
 법 인	1700 만원	₩ 4,350,000	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

